2019년('18년도실적) 출연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

평가기관		부산문화회관
평가대상		전)대표이사 박인건, 현)대표이사 이용관
(현장)평가일자		2019. 4. 19.
평가자	소 속	기업경영분야 평가단
	직 위	평가위원
	성 명	조삼현 외 5명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장 평가단

〔기업경영분야〕

종합평가의견

▢ 총 평

○ 기관장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부산을 선도하는 부산문화회관이라는 비전하에 미션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4대 경영목표, 수행전략, 4대 핵심가치 수립, 4대 경영부문별 세부실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전략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략과제 달성을 위한 팀별 핵심성과지표의 개발, 팀성과지표의 계량화·구체화, 이에 따른 분기별 성과평가 피드백, 직원 근무평정에 연계하여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등 적절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비전 및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고객을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으로 구분 정의하고, 고객설문조사와 홈페이지 Q&A, 고객모니터링단 운영, 근무만족도 조사, 직원제안제도 활용 등 다양한 채널을 운용하고 있음.

○ 기관장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고 음악뿐만 아니라 무용, 연극 등 다채로운 공연 예술이 풍성하게열리는 공간을 만들고 관객이 더 깊고 다양하게 예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소신아래 가치경영, 친화경영, 성과경영 윤리경영이라는 4대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기관장은 시민문화향유와 문화복지를 극대화하고 부산 공연예술 생태계의 균형있는 진흥을 위해 시립예술단의 수준향상과 함께 예술적 스펙트럼을 다양화하고 공연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관객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조직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한정된 재원으로 안전과 노후화된 무대 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기울이고 있으나, 매우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을 교체하지 못하고 계속 고쳐가며 쓰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가는 것으로 안전에 관한 한 시급히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우수사항

○ 다양한 방식의 회원 발굴 사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관객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공연 기획 시 지역 예술계에 대한 안배나 신진 예술인의 육성은 물론 기성 예술가와의 협력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

○ 전산회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예산 통제기능 강화, 지출결의서 자동생성, 수입지출 상시조회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해졌고, 소액구매 및 계약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구매업무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

○ 기관의 고객을 만족시키겠다는 고객가치 기반을 조성하고 공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기관입장에서가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중심의 평가로 공연 외 회관의 전반의 보완점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 시민들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가결과에 의해 고객의 소리를 들으려는 고객모니터링단 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양한 기관과의 홍보협력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사회공헌협업 및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이 문화회관을 견학하고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관객맞춤형 공연을 추진하는 등 찾아가는 예술단공연을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 부산시립예술단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미흡한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의 마련, 공간별 차별화 부족, 관객기반 취약 등 기관이 가진 단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향후 기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기대됨.

○ 아시아문화예술 허브로서 부산의 역할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 및 연사 초청으로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기 문화예술 국제회의 유치를 과제로 설정하여 2018. 11. 1- 11. 4. 4일간 해운대그랜드호텔과 부산문화회관 등지에서 제36회 ‘2018 아시아문화예술 진흥연맹(FACP)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기관은 장애인지역법인연합회, 홈플러스와 공동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장애인을 위한 문화 나눔 음악회를 개최하고 기념품을 배포하는 등 문화소외계층의 공연관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 공연자들의 쾌적한 공연 환경을 위해 분장실 명패 설치, 대극장 무대 공연자용 소파 및 테이블 설치, 소극장 영상시스템 교체, 연주자들의 휴식을 위한 악기테이블 설치, 공연자를 위한 수건, 생수 등 제공, 겨울철에는 핸드 워머와 무릎담요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함.

▢ 미흡·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

○ 2017년 출범한 신설 조직으로 중장기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관장의 경영방침을 근거로 세부 사업 수행이 추진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조직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성장의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필요함

○ 수탁 운영 중인 7개 예술단 중 6개의 단체 감독이 공석으로 예술단 활동의 위축이 예상되는 바, 지역인재 등용이나 신진 인재 등용 등을 고려한 속한 감독의 선임도 필요할 것임

○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 미션, 핵심가치 등 전략체계와 실행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 결산 후 재정분석보고서 작성 등의 환류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의 유도 및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절차를 세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공연장 가동률 목표설정에서 타시도의 문화예술회관 가동률을 참고하고, 공연준비나 개보수 등을 고려한 최대 가동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횡단면적, 시계열적 통합성과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전략과제와 세부실행과제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지속가능

○ 유료회원(정기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가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료회원 확대 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의 특성상 경쟁을 통해 자기 예술적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되지만 현재 기관은 예술 감독이나 지휘자의 상시평가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있음, 이것은 예술감독이나 지휘자의 주관에 의해 평가로 공정성이 훼손 될 우려가 높으며, 이는 결국 단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합창이나 무용 같은 예술단원들은 젊은 세대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순환되어야 하나 문화회관의 특성상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인사적체에 의해 단원들의 순환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 공연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그러므로 단원들의 출구전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할 것임.

◌ 부산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의 향유와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부산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발굴되고 반영되어야 하며,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소통 및 공감을 위한 활동이 필요할 것임.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과 관련하여 고용률 1.2%에 불과한 바, 일상업무 중 장

애인도 업무가 가능한 컴퓨터 자료 작성, 전화응대 등 관련 업무에서 조금 더 장애인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기타 의견(지표개선 등)

○ 기관의 전체 좌석 점유율은 67% 수준으로 이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는 물론 잠재적 고객의 확보 방안, 교육 아카데미의 운영에 대한 실적 분석과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재단법인으로의 전환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단의 조기정착과 시립예술단활성화 등의 산적한 과제를 수행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음